

음악듣느라 카톡하느라... 스마트폰에 빠진 '안전불감'

횡단보도 보행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전남 1위·광주 2위

10~20대, 이어폰 낀채 '위험한 보행'... 교통사고 유발

회사원 최모(여·27·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최근 출근길에서 승용차에 부딪힐 뻔한 아찔한 순간을 넘겼다. 왕복 8차선 횡단보도 한가운데로 이미 빨간불로 바뀐 뒤였다. 최씨는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시간을 알아보다 파란불이 떨어지는 것을 몰랐다"며 "음악을 듣느라 차가 가까이 오는지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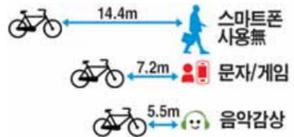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충분한 시야와 청각을 확보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위험한 보행'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14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횡단보도 스마트기기 사용률' 부문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이 1위, 광주가 2위를 기록했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 의뢰를 받아 지난해 처음 전국 229개 시·군·구의 보행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남은 보행자 3916명 중 19.1%(747명), 광주는 3896명 중 18.2%(709명)가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낀 채 보행하고 있었다. 이는 전국 평균 14%에 비해 4~5% 높은 수치다.

전남지역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화순군 47% ▲광양시 31.7% ▲순천시 29.8% 순으로 스마트기기 사용률이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곡성군(4%)이었다. 광주시 동구는 전국 69개구(區) 가운데 스마트기기 사용률 1위(24.9%)라는 오명을 남겼다.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인지거리 변화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광주 713건·전남 641건 등 총 1354건이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88명(광주 55명·전남 33명)으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184명의 47.8%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10만명당 보행자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남 8명(17위)·광주 4.3명(9위)으로 하위권에 든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나주시가 보행자 중 사망자 19.3명으로 전국 평균 3.8명을 훌쩍 넘어 51개군 가운데 51위를 차지했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3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행 중 스마트폰을 1일 1회 이상 사용한 비중은 전체의 95.7%(287명)이었고, 16회 이상도 11.3%(33명)이었다. 5명 가운데 1명꼴(21.7%·65명)로는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사고가 날 뻔한 경험도 있었다.

같은 연구의 실험 결과, 일반 상황에서



25일 오전 광주시 동구 충장로 4가 NC웨이브 인근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이어폰을 낀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며 길을 건너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20~40대는 평균 15m, 50대는 12.5m 구간에서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스마트폰으로 문자 전송·게임을 했을 경우에는 인지거리가 20대 10m(33.3% 감소), 30대 8.8m(41.3%), 40대 7.5m(50%), 50대 2.5m(8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어폰으로 음악을 감상할 때는 평균 인지거리 14.4m에서 5.5m로 61.8% 감소했다.

보행자 2184명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횡단보도에서 음악을 듣거나 문자를 보내는 위험행동을 한 보행자 비율은 10~20대가 24.2%(1226명 중 297명)로 가장 높았고 30~40대 13.6%(740명 중 101명), 50~60대 3.2%(218명 중 7명) 순이었다.

야간 시간대 위험행동 비중은 10~20대 40%, 30~40대 33.2%로 전체 시간대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수업 빼먹은 광주 특성화고 교원 78명 적발

시교육청, 출장·취업 활동 이유 보강 않고 거짓 수업 등 7명 징계

광주시교육청이 출장과 취업 활동을 이유로 수업을 빼먹은 특성화고교 교원 7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수업을 하지 않은 시간은 무려 524시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특성화고 6개교에 대해 최근 3년간 수업 결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출장·외출 등으로 수업을 하지 않은 뒤 보강을 하지 않거나 출장중 수업을 했다고 거짓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한 교원 78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도 이를 보강하지 않아 결손처리된 수업시간은 524시간에 달했다.

수업 결손의 주된 원인은 75%가 출장이었고, 이어 조퇴(9%), 병가(4%) 순이었다. 특히, A교사는 2년간 수업결손 시수가 16시간이나 됐고, B교사는 3년간 15시간이었다. 5시간 이상 수업을 하지 않은 교사는 27명에 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수업 결손의 책임을 물어 교사 1명을 중징계하고, 교사 2명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1명)·교감(3명)

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수업 결손의 정도가 낮은 교원 7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등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사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특성화고교의 수업 결손을 문제 제기함에 따라 시작됐고, 파행적 교육과정 운용이 확인되면서 전체 특성화고교를 특별감사하게 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는 실습과 현장지도가 많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교원들의 출장이 잦고 이 과정에서 수업결손이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학교의 가장 기본적 책무인 교육활동

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특성화고교의 교육과정 운영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교사들의 잦은 출장과 취업 위주의 교육활동 교육 여건을 점검하고, 컨설팅단을 운영해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특성화고의 자율학교 지정을 전면 확대하고, 자율학교의 재량과 권한을 확대하는 등 특성화고의 특수한 실정을 고려한 운영 정상화 방안을 2월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백희준기자 jw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보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6 달뜨기 11:13
해질녘 17:54 달지기 00:00

이별은 겨울비처럼

전날부터 내리던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으며, 낮엔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비온뒤	8/12	보성	비온뒤	6/12
목포	비온뒤	7/10	순천	비온뒤	7/12
여수	비온뒤	8/13	영광	비온뒤	6/8
나주	비온뒤	7/11	진도	비온뒤	6/10
완도	비온뒤	7/11	전주	비온뒤	6/10
구례	비온뒤	6/12	군산	비온뒤	5/8
강진	비온뒤	7/11	남원	비온뒤	5/10
해남	비온뒤	7/11	홍산도	흐림	6/8
장성	비온뒤	7/9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해	북서~북	0.5~1.0	북서~북	1.0~2.0
남부	남해	북서~북	1.0~2.0	북서~북	1.5~2.5
남해	서부	서~북서	0.5~1.0	북서~북	0.5~1.0
서부	남해(동)	서~북서	1.0~2.0	북서~북	1.0~2.0
남해(서)	서부	서~북서	1.0~1.5	북서~북	1.0~1.5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30
빨래	4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6:23	11:23
	18:44	23:52
여수	밀물	썰물
	01:01	06:54
	13:19	19:32

◇주간 날씨

27(화)	28(수)	29(목)	30(금)	31(토)	2/1(일)	2(월)
☀	☁	☁	☁	☁	☀	☀
1/4	-2/5	-1/5	0/6	-2/5	-3/5	-2/5

광주 어린이 놀이시설 12% 안전검사 미이행

안전처, 방치면 관리주체 처벌

오는 27일부터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계속 이용하도록 내버려두면 관리주체가 처벌을 받는다.

국민안전처는 설치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를 제재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7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검사를 받지 않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도록 방치한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전처에 따르면 21일 현재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 6만2천308곳 가운데 96.3%는 설치검사를 완료했지만 나머지 2322곳은 검사를 받지 않았다.

특히 광주는 지자체 관할 놀이시설 중 12%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고, 광주 교육청 소관 놀이시설도 미검사가 8%로 높은 편이다.

/연합뉴스

최문기 전 장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후보 탈락

퇴임 후 반년 만에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의 산하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에 지원해 '관피아' 논란이 일었던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공모에서 탈락했다.

25일 광주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총장추천위원회는 지난 21일 총장 후보 6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해 3명을 총장 후보로 압축했다.

최 전 장관은 서류 심사를 통과해 면접을 치렀으나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

총장추천위원회는 광주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 내부 교수 가운데 각각 1, 2위 순위로 추천한 문승현 환경공학부 교수, 이관행 부총장(기전공학부 교수) 등 2명과 외부 인사 1명 등 3명을 후보로 선정했다.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 2명과 교수회의 추천 교수 1명, 이사장이 지명한 외부인사 1명, 미래부 장관이 지명한 당연직 이사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채희준기자 chae@kwangju.co.kr

200억 한정

부동산 담보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